창간 제7호 · 2026년 11월 22일 일요일 · 발행 CONDERI(콘데리)

FIRSTPAGE

퍼스트페이지

내일의 창업가·경영자가 오늘 여는 첫 페이지

테크·AI 트렌드

中전기차 침투 속도, 한국이 사실상 1위, "생태계 고사 위기"

중국산 전기차의 한국 시장 장악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가운데 국내생산세액공제 등 정책적 지원이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맹유리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22

제232조(25%) 등을 근거로 중국산 전기차에 총 127.5%의 관세를 부과한다.

프랑스의 경우 2024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정책인 '환경 보너스' 제도를 현지 생산 모델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면서 다수의 중국산 전기차 모델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리의 빗장이 풀린 사이 한국 전기차의 수출 비교우위도 최근 2년 사이 빠르게 악화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주요 수출경쟁력 지표인 현시비교우위지수(RCA·특정 품목의 자국 수출 비중을 세계 수출 비중으로 나눈 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기차 RCA는 2023년 2.92에서 2025년 1.48로 2년 사이 절반 가까이 급락했다.

반면 중국 전기차 RCA는 2017년 0.10에 불과했으나 2022년 1.13으로 상승해 1을 넘기며 비교우위를 확보한 데 이어 2025년에는 1.49까지 높아지며 한국(1.48)을 넘어섰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구분 · %

2021년 · 1.1

2025년 ·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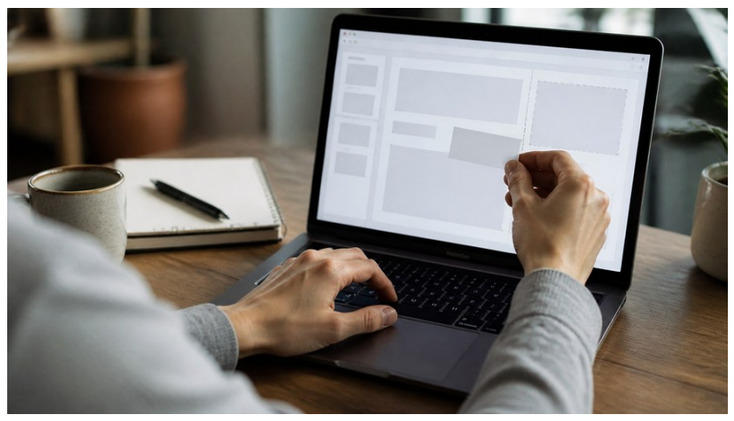
2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글로벌 주요 조사업체 등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1%에서 2025년 33.9%로 불과 4년 사이 32.8%포인트(p)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는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공급망 전반에 걸쳐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전기차 시장만 놓고 보면 전통적인 글로벌 최고 브랜드들도 중국 브랜드와 경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결과 달하던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그 결과 2023년 31.4%에 달하던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지난해 13.4%로 떨어졌다.

EU(유럽연합)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별 조사 협조 여부, 중국 정부 보조금 수혜 규모 등에 따라 2024년 10월 말부터 최대 35.3%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노코드 도구로 화면을 만드는 손.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아는 것이 먼저다. (자료사진)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세 줄 요약

1. 프랑스의 경우 2024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정책인 '환경 보너스' 제도를 현지 생산 모델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면서 다수의 중국산 전기차 모델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2. 그 결과 2023년 31.4%에 달하던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지난해 13.4%로 떨어졌다.
3. 우리의 빗장이 풀린 사이 한국 전기차의 수출 비교우위도 최근 2년 사이 빠르게 악화됐다.

용어 한눈에 보기

공급망 — 부품과 원재료가 완제품이 되기까지 거치는 조달 경로.

관세 —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붙는 세금.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는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공급망 전반에 걸쳐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전기차 시장만 놓고 보면 전통적인 글로벌 최고 브랜드들도 중국…"

— 맹유리 기자

테크·AI 트렌드

당근알바, '약속 점수' 도입 두 달 만에 노쇼 신고 20% 감소, 반복 신고도 줄어

당근알바는 이용자가 점수와 약속 이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알바 약속 리포트'를 운영하며 구인구직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차태현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22

당근알바는 지난 9월 도입한 '약속 점수' 제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면접과 첫 출근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접수된 노쇼 신고 건수가 약 20%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제도 도입 이후 두 달간 전체 면접·출근 약속 중 노쇼 발생 비율은 약 2%였으며, 노쇼 신고를 두 차례 이상 받은 이용자도 이전보다 약 25% 줄었다.

당근의 지역 기반 구인구직 서비스 당근알바가 '약속 점수' 도입 이후 면접과 출근 관련 노쇼 신고가 줄었다는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같은 기간 노쇼 신고를 두 차례 이상 받은 이용자 수도 도입 이전보다 약 25% 감소했다. 다만 이번 결과는 제도 도입 전후의 운영 데이터를 비교한 것으로, 감소분 전체가 약속 점수 도입에 따른 효과인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당근 관계자는 "약속 점수 도입 이후 노쇼 신고와 재발이 함께 줄어드는 변화를 확인했다"며 "실제 이용 데이터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해 갑작스러운 면접 불참이나 출근 취소로 구인자와 구직자가 겪는 불편을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약속 점수

약속 점수는 기본 80점에서 시작해 이행 여부에 따라 조정되며, 100점 달성 시 '약속지킴이' 배지가 부여된다. 당근알바의 '약속 점수' 제도 운영 전후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면접과 첫 출근 관련 노쇼 신고 건수가 약 20% 감소했다.

당근알바는 노쇼 신고 건수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도 줄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구인구직 플랫폼들이 이용자 간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가운데, 실제 약속 이행 기록을 서비스에 반영하는 방식이 노쇼 감소로 이어진 사례가 나왔다. 제도 도입 이후 두 달 동안 전체 면접·출근 약속 가운데 노쇼가 발생한 비율은 약 2%로 집계됐다.

테크·AI 트렌드

크림, 기안84 개인전 '기원' 티켓 단독 판매, 전시·한정판 굿즈로 문화 콘텐츠 확장

아이앱스튜디오와 세이투셰, 프린트베이커리가 참여한 협업 상품도 크림에서 온라인 단독으로 판매된다.

박세미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22

이번 기안84 개인전은 전시 티켓과 협업 상품을 함께 판매한다는 점에서 기존 큐레이션의 범위를 넓힌 사례로, 작품을 관람하는 경험과 작가의 이미지가 반영된 상품을 소장하는 경험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결한다.

트렌드 거래 플랫폼 크림이 기안84의 제3회 개인전 '기원(奇願)' 티켓을 11월 20일부터 단독 판매한다. 전시는 2027년 1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서울 DDP 이간수문전시장에서 열리며, 티켓 가격은 8,400원이다.

지난 2024년 개최한 개인전 '기안도(奇案島): 기묘한 섬'은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까지 순회 전시를 진행했으며, 누적 티켓 판매량 약 17만 장을 기록했다. 트렌드 거래 플랫폼 크림이 기안84의 세 번째 개인전 티켓을 단독 판매하며 전시 콘텐츠와 협업 상품을 연결하는 큐레이션을 강화한다.

바스키아

크림은 바스키아와 옥승철, 맥스 시덴토프 등의 전시 티켓을 선보여 왔으며, 전시 티켓 거래액이 매년 약 150%씩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 티켓 역시 크림이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분야로, 회사에 따르면 전시 티켓 거래액은 매년 약 150%씩 증가하고 있다.

"크림 관계자는 "인기 전시 티켓은 이제 콘서트처럼 트렌드에 민감한 이용자들이 오픈 일정을 미리 챙겨 두는 상품이 됐다"며, "웹툰과 방송, 회화를 오가며 큰 반응을 얻어 온 기안84 작가의 새 전시를 크림에서 가장 먼저 선보이며, 티켓과 한정판 MD를 통해 더욱 풍성한 문화 큐레이션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림(KREAM·대표 김창욱)은 기안84의 제3회 개인전 '기원(奇願)' 티켓을 20일 오후 12시부터 단독 판매한다고 밝혔다.

기안84라는 활동명에 착안해 가격을 정했으며, 관람 일정에 따라 티켓 판매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전시 관람이 작품 감상에서 한정판 상품 구매와 브랜드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다.

테크·AI 트렌드

아이디어스, 전통공예에 캐릭터 IP 접목, 국가무형유산 전승 작가 25인 판로 확대 지원

표예림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22

아이디어스는 국가무형유산 전승 작가 25인의 공예품을 전시·판매하고, 애니메이션 '위시캣' 과 전승 작가 5인이 협업한 작품을 처음 공개한다.

백패커가 운영하는 핸드메이드 커머스 플랫폼 아이디어스가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더현대 서울에서 열리는 전승공예품 팝업스토어 'K-CRAFT 하우스'에 참가한다. '위시캣 콜라보존'에는 국가무형유산 전승 작가 5인이 참여해 캐릭터 디자인과 전통 제작 기법을 결합한 공예품을 선보인다.

전승공예품존에서는 국가무형유산 전승 작가 25인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한다. 핸드메이드 커머스 플랫폼 아이디어스가 국가무형유산 전승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캐릭터 협업 상품을 선보이는 팝업스토어에 참여한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유산 지킴이로서 전승 작가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외 판로 확대와 대중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이디어스

아이디어스는 창작 지원금 지급, 판매 수수료 면제, 멤버십 수익 활용 등을 통해 전승 작가들의 창작 활동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김동환 백패커 대표는 "이번 팝업은 국가무형유산 전승 작가들의 작품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예품을 비롯해 인기 캐릭터 IP와의 협업을 통해 전통공예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이는 자리"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여자 전원에게는 아이디어스 d+멤버십 쿠폰이 제공되며, 윷놀이 이벤트 당첨자에게는 복을 기원하는 달항아리 키링을 선착순 600개 한정으로 증정한다. 특히 캐릭터 지식재산권(IP)과 전통공예의 결합은 기존 공예품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전승 기술을 소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번 행사는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마련한 전승공예품 팝업스토어로, 더현대 서울 지하 1층 아이코닉존에서 9일간 진행된다.

단신

지금 알아야 할 짧은 소식

경제·금융 기초

105병상 규모 대구보훈병원 서관동 증축, 23일 착공

[the300] 국가보훈부가 대구보훈병원 서관동 증축 공사 착공식을 오는 23일 개최한다.

테크·AI 트렌드

바비톡, 직원이 직접 AI 에이전트 만드는 'BaaS' 도입, 두 달 만에 123개 제작

바비톡은 서비스 개발과 마케팅, 품질 검증 등에 AI 활용을 확대하고 12월 케어랩스와의 합병 이후 관련 운영 경험을 조직 전반으로 확산한다.

경제·금융 기초

"아랫집에 물 샜는데 우리 집 수리비는?", 누수 보험, 어디까지 보상되나

보험사는 아랫집 수리비 58만원을 보상했지만, 윗집의 누수 탐지·배관 공사비 40만원은 향후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광고

CONDERI

청소년 창업교육 · SkillBridge

학교와 기업을 잇는 진로·창업 프로그램

www.conderi.com

contact@conderi.com

창업·경영

아이디어에서 출시까지, 회사를 움직이는 판단

창업 스토리

170만명 홀린 '부캉이' 이름값이 얼마길래, 상표 출원 21건

출원인은 부산시를 포함해 13명이다.

조경용 기자

창업 스토리 · 2026.11.21

상어 '부캉이' 가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나타나 전국적인 인기를 끈 가운데, 부캉이의 이름을 둘러싼 상표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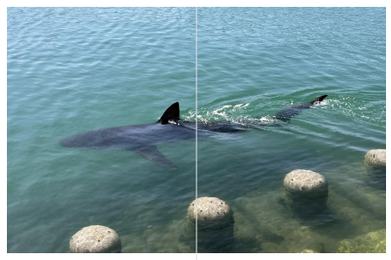
21일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 따르면 '부캉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상표 출원은 모두 2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17일 오후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서 흑상어 '부캉이'가 유영하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개인으로, 일부는 특허법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상표 출원에 나섰다. 이들의 상표 출원 지정상품은 열쇠고리, 머그컵, 모자 등 액세서리, 빵 등 먹을거리, 프랜차이즈 업종 등 다양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캉이라는 명칭은 북항 친수공원을 관리하는 부산시설공단이 처음 사용했다"며 "개인이 부캉이라는 상표를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부산시민을 대표해 상표 출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지식재산처의 심사가 이뤄지기에 앞서 부캉이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는 '정보제공'으로 개인의 상표 등록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개인 출원인들보다 늦은 지난 10월 8일 상표를 출원했다.

개인이 부캉이 상표를 독점할 경우 부산시가 명예홍보대사인 부캉이를 활용해 기념품을 개발하거나 관광·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표법 제49조는 출원된 상표가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도 사회적 관심을 끄는 명칭을 제삼자가 상표로 출원해 독점하려는 이른바 '상표 알박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매일경제 원문 기사 이미지. 사진=매일경제

창업 스토리

스몰캡 알린다던 한국IR협의회, 상폐 위기 시총 300억 미만 기업 리포트 4.7%뿐

내년부터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요건이 300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인 가운데, 2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발간한 보고서 수도 19건(4.07%)에 불과했다.

조경용 기자

창업 스토리 · 2026.11.21

금융당국이 올해 상장폐지 요건 강화 기조를 밀어붙이면서 개인 투자자의 옥석 가리기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기업을 다룬 보고서는 전체 기업분석 리포트의 4.7%에 그쳤다.

시총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0억원 이상~2000억원 미만 기업(124건·26.55%) 비중이 가장 컸다. 하지만 한국IR협의회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낸 보고서는 전체 기업분석 리포트(468건) 중 3건(0.64%)뿐이었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는 2022년 출범 당시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됐고,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시가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형기업에 대한 연간 600건의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보고서는 13.7%에 달했으며, 이미 증권사들의 분석이 활발한 시총 수조원대 대형주도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분석 결과 정작 투자자 보호와 정보 제공이 시급한 상장폐지 위기 초소형 상장사를 다룬 보고서는 극소수에 그쳤다.

"한 코스닥업계 관계자는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갈림길에 선 기업 가운데는 재무 건전성이나 순자산 가치가 탄탄한 알짜 기업도 적지 않다"며 "이런 기업들이야말로 리서치 보고서 등 투자자들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한데 정작 정보를 알릴 창구가 막혀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요건이 300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인 가운데, 2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발간한 보고서 수도 19건(4.07%)에 불과했다. 이 중 일반 기업분석이 279건, 인공지능(AI) 기업분석이 189건, 산업·테마 분석이 5건이다.



첫 제품을 포장하는 학생 창업가. 완성품보다 '팔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 먼저다. (자료사진)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중소형주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한국IR협의회가 정작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린 초소형주 분석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금융 기초

중소기업 96% "신입사원 1년내 퇴사 경험", 인센티브 강화 필요

기업의 처우·조직문화 개선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정착·근속 지원 체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수민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22

인사담당자의 95.6%는 최근 3년 내 입사한 청년 신입사원 가운데 1년 안에 조기퇴사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451명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9~34세 청년 3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청년 조기퇴사 및 정착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 채용 애로로는 '채용 후 조기퇴사로 인한 채용 반복'(40.6%, 이하 복수응답)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들이 파악한 퇴사 사유로는 '급여·복리후생 등 낮은 보상에 대한 불만족'(49.9%)이 가장 많았고 '경직된 조직문화 부적응'(35.0%), '야근·주말 근무 등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24.6%), '채용 당시 안내와 실제 직무의 불일치'(24.4%) 등이 뒤를 이었다. 재직 청년의 64.8%는 첫 직장 입사 후 1년 이내에 조기퇴사를 실제로 결심했거나 현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사담당자들이 채용과 장기근속에 도움이 된 제도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청년자산형성·장기재직 지원'(30.4%)이었고 '고용장려금 지원'(28.2%), '정부 주도 일경험 프로그램'(17.5%) 등의 답이 그 뒤를 따랐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팀장은 "기업이 먼저 성과에 걸맞은 처우와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정확한 직무 안내와 신입사원 교육에 힘써야 한다"며 "정부도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과 절차를 보완하고 직장 적응과 장기근속을 돕는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신입사원

중소기업이 청년 신입사원의 조기퇴사로 채용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기업·청년 모두 보상과 조직문화를 주된 퇴사 원인으로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값을 적을 카드와 동전을 놓고 가격을 정하는 상점 주인. 가격은 회사가 버는 돈을 정하는 숫자다. (자료사진)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청년들도 첫 직장 취업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된 제도로 '청년 자산형성·장기재직 지원'(30.1%), '정부 주도 일경험 프로그램'(19.9%)을 꼽았다.

단신

경제·금융 기초

CIA 첫 한식과정 만든 양종집 교수 "한식 세계화 전초기지로"

프랑스 르코르동블루, 일본 츠지조리사전문학교와 함께 3대 요리학교로 꼽히는 CIA에 한식이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테크·AI 트렌드

금감원, '불법사채 무효확인서' 발급에 AI 판독시스템 도입

금감원은 '연이자율 60% 이상' 초과 대부계약에 대해선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고

CONDERI EDU

학교 창업교육

프로그램 문의

contact@conderi.com

FIRSTPAGE 지면 광고 문의 · contact@conderi.com

테크·AI 트렌드

싱킹머신즈, 노트북서 구동하는 264억 매개변수 '잉클링 2 미니' 공개

중간 계층의 반복 실행을 반영한 토큰당 실효 활성 매개변수는 54억개에 달한다.

맹유리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22

싱킹머신즈(Thinking Machines Lab)가 노트북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소형 AI 모델 ' 잉클링 2 미니(Inkling 2 Mini)' 를 공개했다.

전체 매개변수는 264억개지만, 신경망의 중간 계층을 반복 실행하는 새로운 구조를 적용해 1000억개 미만 오픈웨이트 모델 가운데 최고 수준의 코딩 성능을 확보했다. 전체 매개변수는 264억개이며, 전문가 혼합(MoE) 구조를 통해 실제 활성화되는 매개변수는 34억개다. 중간 계층의 반복 실행을 반영한 토큰당 실효 활성 매개변수는 54억개에 달한다. 모델 메모리 사용량은 약 20GB로, 32GB 이상의 메모리를 갖춘 맥북이나 맥 미니 등 일반 소비자용 기기에서도 구동할 수 있다.

싱킹머신즈

싱킹머신즈는 20일(현지시간) ‘잉클링 2 미니’의 가중치를 공개하고, 허깅페이스와 자체 모델 플랫폼 '팅커(Tinke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트랜스포머가 각 토큰을 신경망 전체에 한 차례 통과시키는 것과 달리, 잉클링 2 미니는 24개 계층 가운데 중간 12개 계층을 토큰마다 세 차례 반복 실행한다. 싱킹머신즈에 따르면 잉클링 2 미니는 1000억개 미만의 매개변수를 가진 오픈웨이트 모델 가운데 '딥SWE v1.1'에서 48.2%, '발스 인덱스(Vals Index) v2.2'에서 46.5%를 기록해 비교 대상 모델을 앞섰다.

스탠퍼드대학교 연구진이 진행한 '와트당 지능(Intelligence per Watt)' 평가에서 엔비디아 DGX 스파크로 구동한 잉클링 2 미니는 0.703점을 기록했다. 또 하나의 오프라인 맥북에서 가상 마을의 AI 캐릭터 20개를 동시에 구동하는 실험도 진행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 횟수를 조절할 수 있는 연구용 모델 ' TML-d24-varloop-research'를 공개했다.



노코드 도구로 화면을 만드는 손.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아는 것이 먼저다. (자료사진)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경제·금융 기초

서학개미, 앤스로픽 상장 첫날 2200억 매수, 스페이스X의 5분의 1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앤스로픽 상장 당일 TIME 글로벌AI인공지능액티브 등 ETF 4개에 앤스로픽을 0.25~0.5%씩 담았다.

표예림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22

글로벌 증시의 큰 주목을 받은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 상장 첫날 서학개미(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해당 주식을 2000억원 이상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앤스로픽이 상장한 19일(이하 현지시각)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국내 11개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앤스로픽 주식은 총 1억6380만달러(약 219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미 우주기업 스페이스X 상장일 매수액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특히 지난 6월 상장한 스페이스X 첫날 순매수액 7억9593만달러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앤스로픽 상장 당일 TIME 글로벌AI인공지능액티브 등 ETF 4개에 앤스로픽을 0.25~0.5%씩 담았다.

스페이스X 상장 직후에는 미 증시는 물론 코스피도 9000선을 돌파하는 상승장이었던 반면, 앤스로픽 상장 때에는 글로벌 증시가 하락세고 개인의 투자 여력도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

업계 관계자는 “상장일 기준 글로벌 주식 시장 분위기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자금 여력을 고려하면 앤스로픽에 대한 관심이 스페이스X보다 낮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월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통해 나스닥에 입성한 SK하이닉스 첫날 총매수액(1억8309만달러)보다 약 1900만달러 적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일찌감치 지난 9월 에이전틱 AI 관련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HANARO 미국에이전틱AI TOP2+ ETF’를 상장했다. 삼성자산운용도 지난달 ‘KODEX 미국AI에이전트액티브’를 출시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오는 24일 ‘TIGER 글로벌LLM액티브’를 출시해 앤스로픽을 편입한다.



조선비즈 원문 기사 이미지.
사진=조선비즈

테크·AI 트렌드

앨리스 황 칩 거래망 추적하니, 중국 게임업체·캄보디아 범죄 조직 등장

인스퍼는 중국군 지원 혐의로 2023년 3월 미국 상무부의 수출 제한 명단에 올랐지만, 미국 자회사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차태현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22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12명 이상의 관계자를 취재하고 수백건의 기업 등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 메가스피드 임원 앨리스 황이 엔비디아 칩을 중국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네.

젠슨 황 전 엔비디아 CEO와 연인 관계였던 앨리스 황을 둘러싼 의혹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업과 인물들의 연결 관계가 드러났다.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는 중국 서버업체부터 온라인 게임업체, 싱가포르 클라우드 기업, 캄보디아 범죄 조직 관련 인물까지 이어지는 거래망이 확인되면서 엔비디아 칩 밀수 의혹의 구체적인 구조가 드러났다.

이 과정에 중국 게임업계 관계자와 수백개의 유령회사, 캄보디아 범죄 조직 관련 인물까지 등장했다. 인스퍼는 중국군 지원 혐의로 2023년 3월 미국 상무부의 수출 제한 명단에 올랐지만, 미국 자회사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스퍼의 일부 중국 고객들은 온라인 게임업체 센추리 화퉁(Century Huatong)에 도움을 요청했고, 관련 인물들은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해외 법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센추리 화퉁과 관계를 맺고 있던 게임업체 7로드(7Road)는 싱가포르에 오랜 사업 기록을 가진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앨리스 황은 2023년 이 법인을 인수해 메가스피드(Megaspeed)로 이름을 바꿨다. 앨리스 황의 남편 캉웨이는 센추리 화퉁의 초기 투자자였으며, 그의 투자회사는 앨리스 황과 센추리 화퉁이 투자한 게임업체 7로드와 함께 2020년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투자했다. 이번 보도에서 새롭게 드러난 또 다른 연결고리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 프린스 그룹(Prince Group)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는 후샤오웨이다.



AI타임스 원문 기사 이미지.
사진=AI타임스

단신

테크·AI 트렌드

아임웹, AI 에이전트 개발·운영 사례 공개, ‘AI 루프 엔지니어링’으로 업무 방식 재설계

아임웹이 지난 18일 첫 오프라인 기술 밋업 ‘테크그라운드 26’ 을 개최하고 AI 도입에 따른 개발 조직의 업무 변화와 실무 사례를 공유했다.

테크·AI 트렌드

AI 데이터센터의 병목은 칩이 아니라 전기다, 정부는 50MW까지 심사를 면제한다

인공지능 산업의 걸림돌이 반도체에서 전력으로 옮겨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30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약 1,000테라와트시로 지금의 두 배가 된다고 봤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50MW 이하의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광고

FIRSTPAGE 지면 광고

청소년이 실제로 읽는 지면에 브랜드를 싣습니다 · contact@conderi.com

firstpage.conderi.com

경제·금융 기초

1,073억 달러를 모은 앤트로픽, 상장 첫날 종가는 공모가보다 17% 높았다

역대 최대 규모 기업공개, 종가 시총 1조2,800억 달러로 미국 상장사 10위

차태현 기자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이 11월 19일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공모가 83달러로 모은 돈은 1,073억 달러로 역대 최대입니다. 첫날 종가는 97.17달러로 공모가보다 17.1% 높았지만, 시초가보다는 12.9% 낮았습니다. 열기와 냉각이 같은 날 나타난 상장을 뜯어봅니다.

숫자부터

앤트로픽은 11월 19일(현지시간)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주당 83달러의 공모가로 813억 달러를 모았고, 사모 배정 260억 달러를 더해 총 1,073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지난 6월 스페이스X가 세운 862억 달러의 기록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상장 첫날 거래량은 8억5,264만 주로 스페이스X의 5억2,200만 주도 넘었습니다.

주가는 111.50달러에 첫 거래를 시작해 장중 115.1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100달러선 아래로 내려와 97.1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17.1% 높지만 시초가보다는 12.9% 낮은 가격입니다.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1조2,800억 달러로 미국 상장사 10위, 스톡옵션과 전환사채를 모두 반영한 완전희석 기준으로는 1조7,500억 달러입니다.

처음으로 금에 가격이 붙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붐에서 투자자들이 산 것은 곡괭이와 삽이었습니다.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력, 냉각 장비처럼 금을 캐는 쪽에 팔리는 산업입니다. 모델을 만드는 기업은 비상장 상태로 사적 가치만 인정받았습니다. 앤트로픽은 그 금 자체가 공개시장에서 처음으로 가격표를 받은 사례입니다. 가격표가 붙으면 컴퓨팅 비용과 전력비, 연구개발비가 분기마다 숫자로 공개되고, 매출 구조의 집중도도 검증 가능한 항목이 됩니다. 시장은 이 가격표를 두 번 계산했습니다. 공모 단계에서는 보수적이었습니다. 상장 전 거론된 2조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공모가가 정해졌습니다. 거래 첫날에는 38.7%까지 올랐다가 곧 되돌렸습니다. 열기와 냉각이 같은 날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앤트로픽은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로 나스닥에 상장했다.
CONDERI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한국 창업가에게 남는 것

첫째, 자금 조달의 기준선이 바뀝니다. 1조 달러 기업이 등장하면 그 아래 기업들의 가치도 상대적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둘째, 기술 서사만으로 라운드를 받던 시기가 짧아집니다. 앤트로픽조차 공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셋째, 가장 현실적인 기회는 여전히 곡괭이 쪽입니다. 이번 주 국내에서 338억 원이 의료 로봇 기업에, 200억 원이 유리기판 소재 기업에 투자된 것도 같은 논리입니다.

이 기사는 나스닥 공식 집계와 연합뉴스·한국경제·ZDNet 보도(11월 19~20일)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테크·AI 트렌드

AI를 도입한 636개 기업, 3년간 신입 채용을 10.1% 줄였다

정부 AI 바우처 사업 수혜 기업과 탈락 기업을 비교한 연구, 초급 업무 대체가 첫 효과

박세미 기자

건국대 이환웅 교수 연구팀이 정부 AI 바우처 사업에 신청한 2,239개 기업을 3년간 추적했습니다. AI를 실제 도입한 기업은 전체 신규 채용이 8.0%, 19~34세 청년 신규 채용이 10.1% 줄었습니다. 같은 사업에 신청하고 선정만 갈린 기업을 비교한 결과라 인과 해석이 가능한 실증 분석입니다.

같은 신청서, 다른 결과

연구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바우처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 중 선정된 636곳과 탈락한 1,603곳을 비교 집단으로 삼았습니다. 두 집단은 같은 사업에 신청했다는 점 외에 비슷한 출발선에 있었기 때문에, 선정 여부가 만든 차이를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2015~2024년 기업 패널 자료로 수혜 전후 3개년의 고용 변동을 인과적으로 분석한 결과, 인공지능을 실제 도입한 기업은 탈락 기업보다 전체 신규 채용이 8.0% 줄었고, 초급 직무가 집중된 19~34세 청년 신규 채용은 10.1% 줄었습니다.

왜 신입부터 줄어드나

기업이 AI를 공정이나 사내 시스템에 접목하면 서류 분류, 기본 데이터 가공, 정형 검사처럼 신입이나 청년이 맡던 초급 업무가 먼저 대체됩니다. 연구팀은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해고나 인원 감축에 제약이 따르는 환경에서 기업은 기존 인력을 내보내는 대신, 퇴직자가 나와도 빈자리를 채우지 않거나 채용 계획 자체를 줄이는 경로를 택한다는 것입니다.

총수가 놓치는 부분

정부 지원사업의 성과 지표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취업자 총수를 봅니다. 기존 인력을 자르지 않으면 겉으로는 고용이 유지된 것처럼 보입니다. 연구를 발표한 이환웅 교수는 신규 채용과 이직·퇴직을 분리해 추적하는 고용 유량(flow) 지표를 도입하고, 인공지능 훈련과 채용을 연결하는 트랙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설비투자에 집중된 세제 혜택과 사람을 뽑을 때 늘어나는 사회보험료 부담의 비대칭도 개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같은 주 학술대회의 대응

한국경영정보학회 2026 추계학술대회(11월 13일)에서는 12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됐고, 기술 세션의 결론은 비슷했습니다.



AI 도입 기업은 초급 업무부터 대체하면서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경로를 택했다.
CONDERI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공통 결론은 에이전트가 초안을 만들고 사람이 확인하며 그 기록이 남는 구조였습니다. 확인 단계를 초급자의 학습 경로로 설계하면, 대체된 업무가 곧 경력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기사는 건국대 이환웅 교수의 노사공포럼 발표(11월 9일)와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서울경제 보도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경제·금융 기초

3.9% 성장과 48개월 감소, 같은 나라의 두 온도

전체 취업자는 늘었는데 청년만 줄었다, 한국은행은 26일 금리를 다시 올릴 전망

양재형 기자

10월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13만 9,000명 늘었고,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성장률을 3.9%로 봤습니다. 같은 달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9만6,000명 줄어 48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성장과 물가, 금리는 함께 오르는데 청년의 자리만 줄어드는 구조를 살폈습니다.

한 달에 두 개의 다른 노동시장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10월 취업자는 2,917만9,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3만9,000명 늘었습니다. 15~64세 고용률은 70.4%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였습니다. 반대로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9만6,000명 줄었고, 이 감소가 48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기록입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9만6,000명, 30대가 12만8,000명 늘었고 20대는 20만3,000명 줄었습니다.

성장률은 왜 3.9%까지 올랐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1.0%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8월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0.3%의 세 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가 축이었습니다. 11월 1~10일 수출은 334억6,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1.9% 늘었고, 그 절반(49.7%)이 반도체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성장률을 3.9%,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년을 3.9%로 봅니다.

물가와 금리도 함께 올라간다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8% 올랐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물가도 2.8%였습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2.0%)를 0.8%포인트 웃돕니다. 기준금리는 7월과 8월에 각각 0.25%포인트 올라 연 3.00%가 됐고, 11월 26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3.25%로 오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키움증권은 내년 2월 한 번 더 올라 3.50%에 이를 것으로 봤습니다.

성장이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한국은행은 10월 이슈노트에서 원인을 산업구조에서 찾았습니다. 생산은 정보기술 제조업이 끌지만, 상용직 채용은 비정보기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주로 나옵니다. 성장이 일어난 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성장률과 채용이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경력직 선호와 수시 채용 확산, 인공지능 도입이 초급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청년 진입 통로가 더 좁아졌습니다.

숫자로 보면 고용의 질도 같은 방향입니다.



지난 10월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9만6,000명 줄어 48개월 연속 감소했다.
CONDERI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8월 기준 청년 임금근로자 322만3,000명 중 비정규직이 148만2,000명으로 46.0%였습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비정규직 비율은 32.6%에서 38.5%로 5.9%포인트 오르는데 그쳤지만 청년은 31.8%에서 46.0%로 14.2%포인트 뛰었습니다. 시간제 비율은 7.3%에서 27.4%로 늘었습니다.

남은 일정

26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와 함께 수정 경제전망과 6개월 뒤 금리 전망(점도표)을 발표합니다. 12월 1일에는 11월 월간 수출입 동향이 나옵니다. 시장은 점도표의 중간값이 3.50%로 올라가는지, 반도체 외 품목의 회복이 확인되는지를 지켜봅니다.

이 기사는 국가데이터처 고용동향·물가 발표, 한국은행 통계와 증권사 전망 보고서(11월 20~21일 보도)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단신

경제·금융 기초

영업이익보다 법인세 더 낸 카카오, 두나무 지분 매각 영향

카카오 별도법인인 본사의 법인세 납부액은 지난해 1~9월 1007억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3607억원으로 2600억원 늘었다.

경제·금융 기초

한은, 석 달 만에 금리 인상 재개 전망, "내년까지 긴축"

전문가 절반은 금통위가 내년 1분기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고, 일부는 최종 금리가 연 3.75%에 이를 가능성도 열어뒀다.

광고
CONDERI EDU
학교 창업교육
프로그램 문의
contact@conderi.com

FIRSTPAGE 지면 광고 문의 · contact@conderi.com